

강원철도 첫 강남 연결 시대

〈서울〉

여주~원주 전철 21.95km 공사 기본설계 돌입
서울 강남지역과 90분대 연결... 복선화 여론 고조

최근 여주~원주 전철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원철도의 첫 서울 강남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경강선 인천~강릉 구간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계획된 여주~원주 구간을 복선화해야 한다는 원주지역사회의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지금껏 경춘선, 중앙선, 강릉선 KTX까지 도내 철도 노선은 강북의 청량리역이나 상봉역과 연결됐지만, 여주~원주 전철이 개통되면 비로소 서울 강남과 성남 판교 등 수도권의 신흥상권과 곧바로 연계된다. 전문가들은 여주~원주 전철은 서울의 경제

력이 집중된 강남권과 90분대에 연결, 기존 강북과는 다른 산업과 관광 면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가까워진 접근성 탓에 일명 ‘빨대 효과’ 또한 우려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여주~원주 21.95km 구간 전철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류재일·김보경·오윤석기자

2면에 계속

강원철도 첫 서울 강남 연결시대 - 1면에서 계속

이어 실시설계와 보상, 본공사를 벌여 2023년 완공이 목표다. 사업비만 5,299억원이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2016년 운행을 시작한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연결, 서울 강남까지 약 1시간3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성남 판교까지는 1시간10분대다. 여주~원주철도가 놓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원주 부동산의 가치가 부각돼 거주지에서부터 기업 이전까지 원주지역 도시성장의 호재가 기대된다. 김재진 강원연구원 박사는 “2023년 원주시와 강남권과의 전철

연결은 강원권으로는 매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원도 유일의 가사,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범무법인 일헌 김혜란 변호사

- 춘천여고 (56회)
- 서울대, 사법시험 (45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2014. 2. 퇴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전문변호사에게!

☎ 033) 747-8050 ~ 2

원주시 무실동 원주법원 옆 범조빌딩3층(신축/이전)



강경연 베트남서 세미나 개최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 최돈진)는 최근 베트남 호찌민 롯데레전드호텔에서 현지 경제동향 분석을 목표로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社 說

강원도 통일 시대 주도는 SOC 확충에 달렸다

한반도는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가 거듭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면서 남북 소통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남북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남북 당국자가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24시간 상시 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문점 선언이 있는 지 140일 만이다. 70여년의 분단 역사에서 올해만큼 격동의 변화가 있었던 해는 없었다.

앞으로 남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되면 북한과 접해 있는 강원도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한다. 지금까지 변화의 기회를 받았지만 남북이 교류하면 교통, 물류, 관광의 요충지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도가

평화를 매개로 명실공히 북방경제의 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우리나라 전체 DMZ의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평화공원 설치와 생태·관광 등 DMZ 활용방안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도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접경지역의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올림피 개최도시 수준까지 발전시켜 군(軍)-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숙박업소 시설 개선, 케이팝(K-POP) 공연 등 18개 과제(576억원)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다. 평화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민통선 북상 논의 역시 구체화해야 한다. 현행 군사분계선에서 10km인 민통선을 5km 이내로 북상하면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의 147배(426.45km²)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남북철도를 이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동해북부선은 남북 특수성을 감안,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자면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가 필

요하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표류하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당초 계

한반도,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 거듭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돼야

확대로라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와 노선이 경유하는 시·군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뒤엉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여기에도 최근 급진전을 보이는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에 밀려 동서고속화철도 개설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망까지 나오고 있다.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는 미래의 통일 한국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정부는 이 철도를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이 철도 개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간시설로 활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협력의 필요성, 북방경제 개척의 지름길이 돼야 할 철도라는 점에서다. 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

지역농협 공사 '최저가 입찰' 여전

설계금액 60% 수준 부실공사 우려
“공공기관 적격심사 민간 도입 필요”

속보=2010년부터강원도내 지역농협의 최저가 공사로 부실시공 논란(본지 2017년 11월 14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농협의 최저가공사 기조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도내 건설업계와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평창 A지역농협은 지난해 9월 1775여㎡(530여평) 규모의 자재창고 신축공사를 당시 공사 설계금액 22억2200만원의 60% 수준인 13억3300만원에 낙찰시켰다. A지역농협이 최저 공사비를 제시한 건설사를 우선 선정된 결과다. 또 춘천 B지역농협도 지난해 6월 주유소 신축공사를 설계가격 14억1000만원의 72% 수준인 10억2000만원에 진행됐다. 같은해 3월 강릉 C지역농협도 점포 증축공

사의 설계가격이 15억5100만원이었지만, 입찰 당시 설계가격의 68% 수준인 10억5900만원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저가자재 사용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계는 지역농협 저가낙찰 시설의 하자보수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발주된 원주 한 농협 신축공사로 세워진 건물의 경우 설계가격의 48%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2년만에 건물바다의 하자가 발생, 보수공사를 하는 등 건설업계로부터 저가공사에 따른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공사를 맡은 서공사들은 저가공사로 적자경영에 시달리는데다 하자 보수 책임까지 지면서 지금도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적격심사제가 민간공사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